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

- 농협은 지난 5월26일에서 6월2일 사이 전남, 경북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사과와 배 등 농작물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함.
 - 농협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매를 맺은 과실 가운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과실의 비율(유과타박률)은 전남 나주 지역이 70%, 경북 청송·안동 지역이 약 60%인 것으로 집계됨.
- 이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서는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임.
 -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피해접수 건수는 5,258건으로 피해지역의 가입 건수 26,482건의 19.9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예상 피해금액은 689억원, 피해율은 44%로 추정되고 있음.
 - 농가에 지급될 보험금 규모는 약 380억원으로 추정되며, 이로 인해 농작물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임.
- 향후 농협은 적과후 착과수* 조사(6월~9월), 수확전 착과피해 조사(9월~11월), 감수 과실수 산정 및 피해율 산출(11월~12월초)을 거쳐 12월 중순경 보험금을 확정하여 지급할 계획임.
 - * 적과후 착과수: 나무의 힘에 비해 너무 많이 달린 열매를 일찍 숙아낸 후 열리는 열매 수
-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50%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으며, 대상품목도 올해 20개, 2011년에는 30개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함.
 - 이에 농가에서는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보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.

(사과배 우박피해, 예상보다 심각!, 농협 농업정책보험부, 6/11)